

너희 처소가 될 땅

말씀: 민 15:1-16

요절: 민 15:2

오늘 공부할 본문은 다시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38년 동안 1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신2:14)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란 약속과 소망으로 왔는데 그들이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이제는 죽을 때까지 광야를 헤매는 의미 없는 방황 생활의 날들 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이들의 하루하루는 죽음을 기다리는 날들 뿐입니다. 이 기간은 가데스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38년의 세월입니다. 신명기 2:14절, “우리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삼십팔 년이었느니라. 마침내 이때에 군사들의 모든 세대가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서 소멸되었나니”(신2:14).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세대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어린 아이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나온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을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셨는데 신명기가 ‘두 번째 명령’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아버지 세대가 불신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는 것을 본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여행 기간 동안 이들이 장차 들어가 살게 될 땅에서 행해야 할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받은 율법을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은 광야에서 죽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생활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어차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고 하늘에서 살아 볼 기회조차 없다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법을 가르치신 것은 그들의 자손들이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1). 이 말씀은 성경의 신적 기원, 저작설, 영감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주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주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명령하셨고 군대로 계수된 모든 자가 죽게 될 것이란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들은 주의 징계와 심판, 형벌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 처소가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2).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언자요 사역자입니다. 대언자들 역시 요나를 제외하면 이스라엘에게만 말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6절,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마10:6). 주님은 사도들의 사역

지를 이스라엘로 한정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마15:24).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말씀과 달리 말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기도에 냉정하게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그 여자는 큰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의 사역자였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롬15:8).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복음을 맡았고, 할례자들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무할례자들의 복음을 맡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7,8절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갈2:7,8).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침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례를 선포하지 않았고, 율법 준수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이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줄로 압니다. 이는 오류와 무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시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 처소가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2). 주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은 38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의미 있게 사는 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국민에게 주신 국법(國法)이요 헌법(憲法)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때부터 관습법이 아니라 체계적인 성문 율법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왕이나 의회가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진 민족으로 12지파가 연합된 연방 국가였습니다. 이 법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행될 법입니다. 예를 들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십일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절기 준수나 음식 규례도 없었습니다. 첫 열매 수확물을 제사장에게 들고 가는 일은 광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고 드릴 수 있는 헌물이나 십일조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 가면 자동적으로 주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때 이스라엘은 율법 준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빌론에 사는 유대인들이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레25:2). 주께서는 그들이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주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핵심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주님은 법을 주시면서 앞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데려가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민15:18).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민33:51).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말씀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구약의 핵심은 “땅”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율법에 초점을 맞추지만 율법을 지켜야 할 땅, 그들이 살게 될 땅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주시는 땅에서 주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이 만약 주의 법을 어기면 주께서 주시는 땅에 거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죽거나 포로가 되어 이방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버리면 그 땅이 그들을 버립니다. 레위기 18:28절,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 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 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레18:28). 주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이 그 땅에서 영구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20:2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 내지 아니하리라.”(레20:22).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버리면 그들은 그 땅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핵심은 늘 ‘땅’입니다. 주의 백성과 주의 법은 그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아니면 어느 나라 땅에 살든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느 땅, 지역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를 반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믿음의 법, 의의 법, 왕가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서는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준 주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15:4)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15:5).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듭니다(요15:6).

3절입니다.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때에 곧 소 떼나 양과 염소 떼에서 취해 번제 헌물이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이나 자원 헌물이나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에 드리는 희생물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릴 때에”(3).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로 헌물을 드리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때”(3) 그들이 드릴 희생 헌물에는 밀가루와 기름, 포도즙과 같은 음식과 음료를 함께 드리는 것에 관한 법입니다. 불로 예비하는 헌물은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는 헌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번제 헌물 뿐 아니라 음식 헌물이나 음료 헌물까지도 불로 예비하는 헌물입니다. 전부를 태우느냐 일부를 태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헌물은 기본적으로 불로 예비하는 헌물입니다. 희생 헌물은 소나 양, 염소 중에서 취하고 간혹 비둘기를 잡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번제 헌물, 서원 헌물, 자원 헌물, 명절에 드리는 헌물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희생 헌물의 죽음을 통해 피를 드리고 주의 제단의 불 위에 헌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헌물로 드리는 소 떼나 양과 염소 떼에서 취해 번제 헌물이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이나 자원 헌물이나 주의 절기(명절)에 드리는 희생물들은 죽여서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놓으면 불에 탑니다.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릴 때에”란 말은 불로 태울 때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자원 헌물 등 무슨 헌물이든 주께 드리는 헌물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이고,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려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엡5:2). 예수님은 자신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리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항상 주께 이런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고후2:14,15). 우리는 주께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희생물(빌4:18)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4절입니다. “자기의 헌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 음식 헌물을 가져올지니라.”(4). 3절에 언급된 헌물을 드릴 때에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추가해서 드리는 것에 관한 법입니다. 음식 헌물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2장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음식 헌물은 그 자체로만 드릴 수도 있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릴 때 추가 되는 헌물로 드러지기도 합니다. 음식 헌물은 하나님의 식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고운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유향을 넣고, 소금이 필요합니다. 구운 음식 헌물이라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헌물을 드리는 자는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 음식 헌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주의 사항은 누룩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 헌물은 일부만 태워서 주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의 사항은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는 소금을 쳐야 합니다. “너는 네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네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네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레 2:13). 본문은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는 방법이 아니고 소떼나 양떼나 염소 떼 중에서 희생물을 취해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때 밀가루와 기름을 음식 헌물로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이 어린양 한 마리인 경우에는 그것과 함께 음료 헌물로 포도즙 사분의 일 힌을 예비할 것이요,”(5). 본문은 번제 헌물이나 화평 헌물 위에 포도즙을 부어 드리는 음료 헌물에 관한 법입니다.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어린양 한 마리만 드릴 경우에는 음료 헌물로 포도즙 사분의 일 힌을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헌물에 포도즙을 부으면 향기는 더욱 강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헌물,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 월삭과 장막절에 드리는 번제와 화평 헌물에 포도즙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희생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 정통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평생토록 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희생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을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음료 헌물은 어린양 한 마리다마다 1/4힌의 포도즙을 드리는데 독한 포도즙을 부어 음료 헌물로 삼습니다(민28:7).

6절입니다. “숫양 한 마리인 경우에는 음식 헌물로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에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어 예비하고”(6). 숫양 한 마리를 드릴 때는 음식 헌물로 밀가루 2/10 에바에 기름 1/3힌을 섞어 예비하라고 합니다. 어린양인 경우, 숫양인 경우, 수소인 경우에 각각 준비할 음식 헌물의 양이 다릅니다. 숫양인 경우는 밀가루를 2배, 수소인 경우에는 밀가루의 양이 세 배를 준비했고, 기름의 양도 달랐습니다. 음료 헌물로 드리는 포도즙의 양은 모두 같습니다.

7절입니다.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삼분의 일 힌을 드려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7). 번제나 화평 헌물을 드릴 때 음료 헌물로 드리는 포도즙은 삼분의 일 힌입니다. 포도즙을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헌물 위에 부어서 태우기 때문에 나는 냄새입니다. 레위기 23:13절에 “그것의 음식 헌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사분의 일 힌을 쓸지니라.”(레23:13)고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8절입니다. “네가 번제 헌물로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로나 혹은 화평 헌물로 수소를 예비하여 {주}께 드릴 때에

는”(8). 번제 헌물, 서원 헌물, 화평 헌물로 수소를 예비하여 주께 드릴 때에 함께 드릴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성경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같은 말씀이 여러 장절에서 반복되고, 여러 책에서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여러 세대에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들은 이전에 받았던 주의 말씀을 다시 선포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인용하고, 했던 말을 다시 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전에 저는 마음에 드는 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책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다보면 책은 수 십 권인데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은 25권을 사서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 2권만 딱 남기면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 책의 내용이 그대로 재탕, 삼탕이었습니다. 성경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분량이 확 줄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서로에게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 수소와 함께 음식 헌물로 밀가루 십분의 삼 에바에 기름 반 힌을 섞은 것을 가져오고”(9). 번제 헌물, 서원 헌물, 화평 헌물에 수소를 드릴 때는 음식 헌물로 밀가루 십분의 삼 에바를 가져오고, 기름은 반 힌을 섞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밀가루는 밀을 빵아서 채에 흔들어 고운 밀가루를 가져 옵니다.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짠 것으로 정제된 기름, 순수한 올리브기름을 가져와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음료 헌물로 포도즙 반 힌을 가져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10). 번제 헌물, 서원 헌물, 화평 헌물에 수소를 드릴 때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반 힌을 가져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삼아야 합니다. 레위기에 정한 헌물을 드리는데 있어서 음식 헌물이나 음료 헌물을 더해 드리는 규례입니다.

11절입니다. “수소 한 마리나 숫양 한 마리나 어린양 한 마리나 염소 새끼 한 마리에게 이같이 행하되”(11). 헌물로 드릴 희생물로는 수소, 숫양, 어린양, 염소 새끼를 드리는데 화평 헌물은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 헌물인 경우에는 제사장은 수소, 이스라엘 회중은 어린 수소, 치리자는 숫염소 새끼, 백성들은 암염소 새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범법 헌물의 경우에는 어린양이나 비둘기 두 마리, 밀가루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짐승을 드릴 수 없을 경우에는 음식 헌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새를 희생물로 드리는 경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희생물로 드릴 만큼 경제력이 안될 경우,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례를 위해서, 나병에서 나온 사람이 한 마리를 번제 헌물로 한 마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 서원 헌물, 화평 헌물의 경우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함께 드렸습니다. 밀가루, 기름, 포도즙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양이 정해졌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예비할 수에 따라 곧 그들의 수에 따라 각각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12). 희생물의 종류, 수에 따라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의 양을 정확히 맞추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물을 드리는 종류, 방법, 양을 정확히 정해 두셨고 언제 드려야 하는지도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릴 때에 이 관례대로 이 일들을 행할 것이요,”(13). 3-13절은 불로 예비하여 드리는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릴 때에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정해진 규례대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핵심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13)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타국인이나 모두 이 법대로 주께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나 유대인이 아니라도 그가 주께 불로 예비하여 향기로운 헌물을 드리려면 똑같은 방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불로 예비하여**”란 말은 문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제단에는 언제나 불이 있습니다.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란 것은 불로 드리는 헌물이 모두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입니다. 불에 태우지 않는 헌물은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 아닙니다. 음식 헌물로 드리는 밀가루와 기름의 일부도 태웁니다. 음료 헌물로 드리는 포도즙도 불로 예비하여 드립시다(민 15:10). “**음료 헌물로 포도즙 반 헌을 가져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민15:10). 번제 헌물만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헌물은 다 불 위에 놓입니다. 전부를 태우느냐 일부를 태우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이나 너희 대대로 너희 가운데 머무는 자들 중에 누구든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리려 하면 너희가 행하는 대로 그도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니라.**”(14).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함께 머무는 타국인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 가운데는 섞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은 지중해를 제외하면 위 아래로 모두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교도들과 결혼을 금하셨지만 이방인들의 이민을 금하시거나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이란 이민자들,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핍박하지 말고 잘 대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출22:21),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출23:9). 성경의 이민법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은 이민자들을 대해 왔습니다.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 너희 대대로 너희 가운데 머무는 자들 중에 누구든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리려 한다면 이들은 혈통이나 민족은 달라도 종교적으로 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 주고, 똑같은 법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하는 대로 그도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니라.**”(14).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멸시하고, 심지어 개들이라고 불렀지만 율법은 주를 섬기려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들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주를 섬기는 일에는 민족, 인종, 혈통과 같은 외모의 편견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섬기려는 자들을 누구나 다 받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회중에 속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도 다 한 규례를 적용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주}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러할지니**”(15). 구약에서 회중이란 말은 신약에서 교회란 말입니다. 광야의 회중을 광야의 교회라고 합니다. “**회중에 속한 너희**”란 말은 교회에 속한 너희란 말입니다. 시편 22: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시22:22). 이 구절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히2:12). “**회중의 한가운데서**”란 시편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교회의 한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회중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회중에 속한 너희(이스라엘)와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이민자, 이방인)에게 모두 한 규례를 적용하라고 하십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인종, 민족, 혈통, 언어 등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민법입니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닌 종교 공동체입니다. 주를 믿고 섬긴다면 그는 같은 법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15). 이것은 광야에서부터 구약 시대를 관통해 신약 시대, 대환란, 천년 왕국에까지 변하지 않는 규례입니다. “주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러할지니라.”(1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타국인을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유대교를 일컬어 유일신을 믿는 배타적 종교라고 하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포용하고 공동체로 차별 없이 받아준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한다고 음해하고 비난하고 오해를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행15:9).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은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3: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 자신을 부르는 자들,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롬 10:12). 구약에서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타국인, 이방인에 관해서 차별이 없는 한 규례를 적용했다면 신약에서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관계없이 주를 부르는 자들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16).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인, 타국인들과 혼인 언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타국인이 주를 섬길 때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법 아래서 평등이란 위대한 사상이 이 말씀에서 기원합니다. 간혹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방인들, 크리스천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처럼 믿어야 합니다.